

농업농촌 발전 발판다지기

임실군, 올해 지원사업 총 200개에 342억원 투입

임실군이 올해 활력있는 농촌, 함께 하는 희망농업 실현을 위해 농업·농촌 분야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2018년 농업, 농촌 분야 지원사업은 모두 200여개로 총 342억원을 투입, 튼튼한 성장 발판을 다져나간다.

이는 지난 해 예산 310억원 대비 32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임실군이 농업·농촌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결과다.

분야별로는 ▲농업정책분야 48억원 ▲희망농업분야 41억원 ▲친환경농업분야 58억원 ▲원예특작분야 55억원 ▲유통가공분야 114억원 ▲귀농귀촌분야 28억원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실고추를 활용해 양념산업을 선도하는 '임실N양념육성사업'과 영경귀, 독활과 같은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열매의 고장 임실의 대표 브랜드를 대표하는 과수가공

식품개발 및 과수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임실N과수육용복합화사업' 등 핵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또한 임실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유통용 식품개발 및 공동이용시설 구축사업'과 농촌 일손 부족과 농촌 과소화 위기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도·농인력지원센터 농기계작업단'을 운영해 고령 영세농가의 인력 및 농작업을 지원하는 등 적재적소의 핵심사업에 총 69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주목할 만한 신규사업으로는 지역 전략품목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복숭아 농가 고소작업차 지원', '양파농가 인태너지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논 타작물재배지원' 등 사업에 11억2400여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촌분야 신규사업으로는 마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고도화 지원사업'과 '마을경연체 경쟁력 강화사업'도 전개한다.



심민군수

'열매의 고장'이라는 임실 브랜드의 명성을 지켜나갈 '세계적 열매따기 체험농장 육성사업'과 임실군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뒷받침할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도 눈에 띄는 정책으로 꼽힌다.

(사)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관 주도형으로 설립해 도시민유치사업과 귀농귀촌활성화사업 사업을 전담하는 한편 귀농·귀촌 관련 상담·교육·지원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 제공 사업에 16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심 민 군수는 "저성장과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농가고령화와 과소화 마을 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많이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지원해 활력있는 농촌·함께하는 희망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발로 뛰는 효심행정 본격화

심민 임실군수, 민생현장 경로당 방문

심 민 군수가 무술년 새해를 맞아 지역 곳곳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 건강상태를 살피고,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효심행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심 군수는 16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임실읍 주공 경로당 등 4개소를 방문, 민생탐방 및 동절기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들었다.

심 군수는 특히 최근 폭설과 한파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지,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를 일일이 체크하며, 새해벽두 효심행정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올해 민생현장 방문은 이날 임실읍 소재 경로당을 시작으로, 내달 2일 덕치면까지 12개 읍면에 걸쳐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

이날 심 군수는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안부를 물었고 동절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등 어르신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심 민 군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 등은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르신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충해 행복의 나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올해에도 경로당 정책 등 다양한 맞춤형 효심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새 소득작물 육성 틈새시장 조준

순창군이 키운 체리와 플럼코트 등 신 소득작물 육성과 신기술 개발 보급에 10억원을 투자해 틈새시장 공략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군은 올해 기후 온난화에 대한 재배 여건 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11개 신 소득작물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플럼코트 재배 육성에 3억여원을 투자한다.

'플럼코트'는 농촌진흥청이 살구와 자두의 장점을 모아 교잡해 만든 새로운 과일로, 과육색과 육질은 살구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크고 새콤달콤하며 자두와 살구의 맛 동시에 지녔다. 군은 식재지원 등 지원을 늘려 틈새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키운 체리도 군이 주목하고 있는 신 소득 작물이다. 국내 체리소비 시

장이 확대되면서 최근 국내산 체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군은 올해 5.0ha 규모, 2억 1000만원을 지원해 키운 체리육성에 나설 계획이며 체육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숭아, 사과, 딸기 등 11개 작물에 대해 신 소득작물 육성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또 신기술 보급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 보급과, ICT 기술 접목, 삼체소 수경재배, 식용달팽이 사육시험 등 신기술 개발보급 등 5개 사업도 진행해 농업인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순창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확보해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나선다.

군은 이달 17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시설개선, 용자금 이차보전)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 면사무소를 통해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장의 화장실, 주방 개보수나 시설 인테리어나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용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용자금 5천만원이하로 최대 3년간 연 4%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순창군에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해당사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업한 소상공인이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600만 관광객 시대 눈앞

남원시, 기존 관광마케팅 탈피 동서축으로 확장

남원시가 2018년 남원관광의 슬로건을 "문화자산과 관광환경의 융합으로 관광 U턴 시대를 준비한다"로 정하고 600만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꼭찬 1박2일 관광인프라 구축', '내실있는 축제 개최', '시민의 삶에 조화되는 관광개발 사업', '남원 예촌의 문화수용력 강화'를 4대 실천과제로 정해 차질 없는 로드맵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시는 또 수도권 중심의 관광마케팅 전략을 탈피해 동서축으로 확장,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터 남원-대구간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대문을 열자' 프로젝트를 더욱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영남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남원 진입 관문인 운봉교원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에서 하루 동안 체류하고 다음날

관한루원, 예촌 등 시내권 관광으로 연계함으로써 12시간의 남원체류시간을 18시간 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운봉, 아영, 인월, 산내면을 중심으로 동부권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집중적인 관광자원 홍보와 관광환경 개선을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한편, 운봉, 아영, 인월, 산내면 일원 지리산 등부권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다.

천년고찰 실상사, 청정명수 뱀사골계곡, 판소리 동편제를 듣고 체험할 수 있는국악의 성지, 이성계 장군이 왜구섬멸을 기념한 황산대첩비지, 백두대간 속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두대간생태전시관 등이 있다.

또, 운봉에서는 바래봉눈꽃축제가 열려 어린이들에게 신나는 겨울 추억을, 어른들에게는 어릴적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신규공모 빠른 대응 나서

임실군은 2019년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신규 공모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성수·관촌면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심 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중간지원조직 및 추진위원 등 20여명의 면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해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의 적실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 민 군수는 인사말에서 "2019년 농림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성수면과 관촌면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도출된 사안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공모사업이 지역성장 동력의 필수요소인 만큼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선정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살고싶은 임실건설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그동안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이 합심하여 작성한 계획서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보완한 내용 등을 점검, 사업을 확정했다.

자문결과를 토대로 내달 8일에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공모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순창군의회(김종섭 의장)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로 순창군이 계획하고 있는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계획이다.

김종섭 의장은 16일,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정치·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장류축제와 세계소스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공공승마장 개장,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완공 등 순창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순창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집행부 공직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올해는 제7대 순창군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로 지난 4년여 의정활동의 성과와 반성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에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면서, 2018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알찬 군정설계와 준비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관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